지역 소식통

### 정읍시, "벼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하세요"

정읍시가 벼 재배농가의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자연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영농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입접수 기한은 이달 21일이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또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보장 병해충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7종이다.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84%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16%만 부담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의회, 14일까지 제306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집행부는 일반회계 8,498억원과 특별회계 174억원 등 본예산 대비 504억원이 증액된 8,67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제출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의에서는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는 회기로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점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등록 눈 앞

## 고창군, "가짜 고창수박 유통 막아 지역 농가 소득 높일 것"… 조건부 심사 합격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대표 특산물인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관련 조건부 심사합격을 통보받았다. 앞으로 서류보완 작업과 2개월간의 공고를 거치면 마침내 고창수박의 원산지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5월 말 기준) 고창군 648농가에서 834㏊에서 수박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수박농가의 숙원사업이었다. '고창수박'은 10년 넘게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박의 대명사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최고 당도의 수박만이 엄선돼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박스갈이 등을 통해 타지역의 저품질 수박이 고창수박으로 둔갑하면서 항의도 많이 받았다. 이에 심

덕섭 고창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 표시는 다른 곳에서 함부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고창군은 2004년 '고창복분자주', 2007년 '고창복분자'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고창수박'이 등록 완료되면 고창 땅콩, 멜론, 보리 등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수박은 1974년부터 대산면 일대 야산개발을 발판으로 대규모 수박재배를 시작해 1980년대에 들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해양성 기후의 특징인 적절한 일조량, 시원한 바닷바람, 미네랄 성분이 가득 담긴 붉은 황토가 어우러진 덕분이다. 여기에 고창군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가들이 협업해 품질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수박 농가의 숙원이었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마침내 이뤄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명품 수박의 브랜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 25개소 지정

정읍시는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25개소를 지정, 지원하고있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대상은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지정 품목의 지역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지정업소에 공공요금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을 제공한다. 또 상수도요금 30%감면과 함께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업소별 맞춤형 물품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정읍사랑상품권(업소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업소에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 이용활성화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이학수 시장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2024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부안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8일 부안 해뜰마루에서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2024년 부안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지역주민, 청소년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에 있는 청소년동아리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마당과 흥이 넘치는 밴드·댄스동아리가 활동하는 공연마당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에게 제공했다.

체험마당에서는 △아이싱쿠키만들기 △천문이야기 △키링만들기 △석고방향제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였고 공연마당에서는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된 댄스·밴드동아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음악을 통해 어울림마당 행사를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다.

행사를 기획한 한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보여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연습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만족해하면서 귀가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면서도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로 키우겠다."라고 전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고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6월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9월 청소년동아리 연합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 걸어라"

##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각종 민원 시민 입장에서 신속 처리 '당부'

이학수 시장이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을 거듭 강조했다.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 중인데, 기재부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또 각 부처에서 빠진 사업들이 기재부 단계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하고 확실한 명분과 논리개발에 나서 달라"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사업장도 수시로 방문해 집중 호우나 태풍 등의 취약 요인은 없는지 미리미리 세심하게 챙길 것도 강조했다.

더불어 기본적인 민원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이라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공직자로서 수준 높은 친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예총 고창지회가 지난 8일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공연을 열었다.

# 고창군, 단오맞이 예술공연 행사 열려

한국예총 고창지회(지회장 한상용)가 지난 8일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공연을 열었다.

'단오야! 응답하라!!'를 주제로 시극과 녹두꽃 예술단, 색소폰앙상블 등 화려한 공연을 시작으로 고창모양민요단, 국악예술단 고창, 별솔하모니 등 다양한 예술공연이 함께 어울어졌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농경사회였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볕이 좋은 날이라 하여 한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로 꼽혀왔다.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맞춰 조상들은 보리수확 감사와 여름철 건강 유지, 신체단련을 위한 의례를 지냈으며, 또한 액을 방지하기 위한 풍습과 한해의 풍년을 바라는 의례를 행했다.

올해 행사는 단오날 고유의 민속행사인 널뛰기 등을 비롯하여 연날리기, 윷놀이, 투호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 뿐만 아니라 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에서 프리마켓도 같이 준비하였다.

한상용 한국예총 고창지회 지회장은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따뜻한 볕을 받아 본격 출하되고 있는 수박과 복분자 등 청정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이 더욱더 건강히 자라나 농민들이 함박웃음을 짓기를 바란다."며 "오늘 공연에 관람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우리 민족의 풍습과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게 애써주시는 한국예총 고창지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단오를 맞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어울려 즐기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